

주간기도정보

2026. 4. 7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사 62:7) 주님은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간기도정보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열방의 소식들을 진리의 말씀에 기초해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모임을 위한 기도 자료입니다.

진행순서 (1) 예배 (2) 한국과 북한,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3) 열방을 위한 기도 - 한주간 긴급기도

1.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주님의 부활이 우리 삶과 나라에 새 희망으로 나타나길”

교계 연합기관들, 2026 부활절 메시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2026년 부활절을 맞아, 한국 교계 주요 연합기관들이 치유와 화합, 통합과 기쁨을 주제로 메시지를 발표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고경환 대표회장은 ‘부활의 기쁨으로, 통합의 큰 길을 따라, 희망의 미래로’라는 제목의 메시지에서 “부활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거룩한 부르심”이라며 부활이 사랑 안의 기쁨, 통합의 길, 희망의 미래를 함께 열어간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이웃과 사회 속에서 살아내는 증인으로 서기를 소망한다”고 당부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김정석 대표회장은 “부활절은 기독교인만의 기념일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선언”이라며 “전쟁과 분열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의 빛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며, 부활의 능력으로 서로 용서하고 하나 되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와 국제사회에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천환 목사는 한국장로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공동 메시지를 통해 “한국교회가 분열과 분파주의의 벽에 가로막혀 부활 예배조차 따로 드리는 현실”을 안타깝게 여기며 “초대교회의 순수한 복음 열정으로 돌아가 한자리에서 한목소리로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날이 오기를 소망한다”고 촉구했다.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세기총) 전기현 대표회장은 “부활은 2천 년 전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현재적 선언이며, 죽음이 끝이 아니고 절망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선포”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부활의 주님께서 닫힌 문을 통과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듯, 인간의 어떤 장벽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다”며 북한 땅에도 부활의 생명이 임하기를 소망했다.

미래목회포럼(대표 황덕영 목사)은 “한국교회가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있는 이웃, 불안한 미래를 살아가는 다음세대, 300만 이주민, 전쟁의 위협 속 중동 영혼들, 그리고 북한 성도들에게까지 소망과 생명의 빛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촉구하며, “부활은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와 나라, 온 열방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라고 강조했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종합).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로마서 8:11)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쓰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린도전서 15:54-55)

하나님, 2026년에도 한국교회가 부활절을 맞이하여 각 책임 있는 연합기관들이 발표한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모습이 혹여 부활에 관하여 지식적인 동의는 하지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채로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공흠을 베풀어 주십시오.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고,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진정 자신의 죽음으로 인정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과 그날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사망 권세 아래 있는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를 외치는 예수교회로 회복시켜 주소서.

2. 북한을 위한 기도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결의안 24년 연속 채택

이동·표현의 자유·납북자 문제 포함… 북한은 “주권 침해” 주장



유엔 인권이사회(UHRC)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담은 북한인권결의안을 24년 연속 채택했다. 이번 결의는 3월 30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1차 회의에서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 방식으로 채택됐으며, 한국을 포함한 50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결의안은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와 이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관행을 강하게 규탄하고,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과 기존 결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이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 납북자

문제 해결과 이산가족 상봉 재개 등 인도적 사안도 강조됐다.

아울러 북한이 제4주기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에 참여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 사회와의 대화와 협력 필요성도 함께 언급됐다. 또한 강제노동 등 인권 침해를 통해 핵·탄도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하고, 주민 복지 자원이 군사비로 전용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인권 상황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은 특히 북한 인권 문제를 단순한 내부 사안이 아닌 보편적 인권 문제로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동시에 인권 개선을 위한 압박과 외교적 관여를 병행하는 접근이 강조되며, 향후 대북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 결의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 여론 형성과 정치적·도덕적 압박 수단으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이번 결의가 북한의 인권 의무 준수 노력과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참여를 평가하면서도, 남북 대화를 포함한 건설적 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3월 31일 성명을 통해 결의안이 전원 합의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면 북한은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4월 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이번 결의를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정치적 도발”로 규정하고,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외무성은 특정 국가를 겨냥한 인권 논의 자체가 주권평등과 내정불간섭 원칙에 어긋난다며, 20년 넘게 이어진 대북 인권결의 채택이 정치화·선택성·이중기준에 오염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가 다뤄야 할 과제로 “패권주의 세력의 국가 테러와 주권 침해로 발생하는 대규모 반인륜 범죄 조사”를 제시했다. 아울러 결의안 채택에 동참한 국가들을 향해 “악의적 행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출처: 데일리굿뉴스, 크리스천투데이 종합).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너희가 옴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공흠히 여기시는 이시니라(야고보서 5:8,11)

학대 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며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시편 74:21-23)

하나님, 24년 연속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오히려 나라의 주권을 내세워 이를 거부하며 항거하는 자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완악하고 교만한 북한 위성자들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사 주의 책망하심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들의 압제가 그쳐지게 하소서. 주여, 일어나사 공산 정권 아래에서 학대를 당하는 북한 주민들을 건져 주시고, 그들의 원통함을 기억하사 저들이 부끄러이 돌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북한 교회를 통해 구원의 복음이 억눌린 영혼들에게 들려지게 하소서. 주의 강림이 가까운 이때, 북한의 영혼들이 자비와 긍휼의 아버지를 의지함으로 이 고난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의 이름이 북한에서 찬송을 받게 하소서.

3.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만군의 하나님이며 우리를 회복하여 주소서”

캠퍼스 복음화 ‘경고등’... 흩어진 선교, 다시 잇는다

교수·신학자 손잡고 ‘다음세대 선교 생태계’ 구축 첫 공식 협력



캠퍼스가 위기다. 청년들의 신앙은 약해지고, 이단은 그 틈을 파고드는 실정이다. 다음세대 복음화의 최전선이었던 캠퍼스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위기감이 교회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목회데이터연구소가 발표한 ‘대학생의 생활과 신앙 의식 조사’에 따르면, 기독교 대학생 절반 이상(54%)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종교는 내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여기에 조직적이고 전략적인 이단 포교까지 더해지며, 캠퍼스는 ‘복음의 공백지대’로 변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단순한 전도의 부족이 아니다. 선교 현장과 신학, 교회와 캠퍼스, 연구와 실천이 분절된 구조 속에서 선교의 방향성 자체가 흐려지고 있다는 데 있다.

윤승범 한국복음주의선교신학회 회장은 “선교신학은 방향을 제시하고, 현장은 이를 실행하는데, 이 둘이 분리되면 선교의 본질이 흐려질 수밖에 없다”며 “이제는 신학과 현장을 다시 연결하는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선교신학자들과 교수 선교 네트워크가 처음으로 공식 협력에 나섰다. 분절돼 있던 선교 구조를 하나의 생태계로 묶어, 다음세대 복음화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한국복음주의선교신학회는 28일 경기 광명 아델포이교회(임동현 목사)에서 제133차 정기학술대회를 열고, 전국대학교수선교연합회(KUPM)와 캠퍼스 선교 및 전문인 선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선교신학 연구 기관과 전국 교수 선교 네트워크가 공식적으로 협력하는 첫 사례다. 학문과 현장, 교회와 캠퍼스를 연결하는 새로운 선교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양 기관은 ▲공동 학술대회 및 연구 교류 ▲선교 자원 발굴 및 양성 ▲데이터 기반 캠퍼스 선교 전략 수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교수들이 발굴한 차세대 선교 인재를 신학적 검증과 훈련을 거쳐 선교 자원으로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에 주력할 방침이다.

KUPM은 1980년대 초 ‘민족 복음화는 학원 복음화로부터’라는 기치 아래 시작돼 1986년 창립 이후 40년간 교수선교사들의 연대 공동체로 자리 잡았다. 현재 전국 11개 지회와 10개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캠퍼스 정보를 공유하며 선교·문화예술·학문과 신앙·다음세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역을 펼치고 있다.

KUPM 회장 박시현 영남대 박사는 “교수 선교는 강단에서의 설교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이뤄지는 삶의 선교”라며 “지성과 신앙을 연결해 학생들의 세계관 형성에 깊이 관여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출처: 데일리굿뉴스 종합).

만군의 하나님이며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시편 80:7)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이사야 60:1-3)

하나님, 기독 청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어가고 이단 포교까지 확산되어 캠퍼스가 복음의 공백지대로 변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이러한 때에 한국교회가 이 상황을 돌아보고 함께 일어나 캠퍼스 선교를 위해 연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와 캠퍼스가 연결돼 선교의 본질을 회복하며 십자가만 자랑하는 복음이 실제 된 증인들이 캠퍼스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다음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연합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청년들의 심령에 주의 광채를 비추시고 구원을 얻는 진정한 부흥을 이루어 주소서. 그리하여 한국 캠퍼스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힌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며 열방 가운데 주를 나타내는 세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다음은 '열방의 긴급기도정보'로 기도가 진행됩니다.
각 해당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실1 -
기도실2 -
기도실3 -

소그룹별 기도가 마친 후에는 다시 함께 모여 합심기도로 마무리합니다.